

# 케리, 히로시마 피폭 상징 '평화공원' 방문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처음 "과거보다 현재·미래 위한 것" 일본 2차대전 책임 몰타기 우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현지 미국 국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廣島)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했다. 히로시마에서의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케리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등 다른 나라 장관들과 함께 이날 오전 히로시마 피폭의 상징인 평화기념공원을 찾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케리 장관은 방문에 앞서 "평화의 중요성과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강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없앨 수 있기를 희망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 "과거를 다시 상기하고, 스러져간 이들을 애우하지만 이번 방문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으며,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의 현직 각료가 이 공원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리 장관 등은 피폭자의 옷, 빠진 모발 등이 전시된 원폭 자료를 둘러보고 위

령비에 헌화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매체들은 소개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과 가까운 히로시마 시 중심부에 있는 이 공원은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1954년 조성됐다. 공원 안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폭 돔과 워령비, 원폭 자료관 등이 있다.

이곳에서 매년 8월 6일 평화기념 행사가 치러진다.

오는 5월 26~27일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의 G7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을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에 앞선 케리 장관의 공원 방문에 대한 미국 여론의 동향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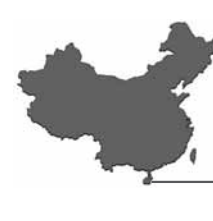

이번 케리 장관의 평화기념공원 방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 자위권 용인 등으로 미국과 일본이 '신(新) 밀월기'를 보내는 가운데 성사됐다.

아베 정권은 케리 장관의 공원 방문을 계기로 피폭의 참상을 전하고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호소함으로써 핵 군축과 핵 비확산의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일 간 견고한 유대를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2차대전 패전의 결과인 평화헌법의 개정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케리 장관의 평화기념공원 방문 행보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가해를 희석시키고 피해를 부각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남뉴스**



손 잡은 미·일 외무장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11일(현지시간) 별도회담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담에서 대북대응 연대·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발효 노력·남중국해 문제 연대 강화 등에 합의했다. **연남뉴스**

**박종구의**  
**中國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권신 사마의

사마의(司馬懿, 179-251)는 위나라의 조조, 조비, 조예, 조방 4황제를 보좌했고 진 왕조의 기초를 닦았다.

자는 중달이며 하남성 온현 출신이다. 사마방의 둘째로 형 사마랑을 포함해 8형제가 모두 뛰어나 사마팔달(司馬八達)이라 불렸다. 사마랑은 인물 품평과 고전 해석에 능했다. 중신으로는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들 조비에게 "그에게 우리 집안을 빼앗길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그는 조조의 출사 요청을 받아들여 208년 문탁연에 취임했다. 조조는 그의 재능을 아껴 중책을 맡겼지만 한편으로는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들 조비에게 "그에게 우리 집안을 빼앗길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그는 한중의 장노 토벌 때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장노를

그가 직접 공평과 대적한 것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전투였다. 네 번째 전투에서는 장함과 힘을 합쳐 촉군의 북상을 저지하였다. 둘은 마지막으로 234년 오장원 전투에서 대결했다. 식량 보급에 애로를 겪은 촉군은 속전속결을 원했지만 중달은 지구전으로 일관했다. 공명은 여성의 머리 수건과 머리 장식을 보내 중달이 싸움을 응하지 않음을 비웃었다. 그러나 이에 말려들지 않았다. 결국 공명은 오장원에서 5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위나라 최고의 중신이 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조씨 왕조의 견제였다. 조상을 중심으로 한 조씨 세력이 권력에서 배제시켰다. 그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와신상담 때를 기다렸다. 조상의 촉군이 그의 근황을 알아보러 찾아오자 말귀를 못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며 병들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연기를 보여주었다. 이에 방심한 조상 일파가 수도를 비운 사이 249년 정변을 일으켜 일거에 정권을 장악했다.

### 제갈량에 승리...진 왕조 기초 닦아

제갈량에 승리...진 왕조 기초 닦아. 제갈량에 승리...진 왕조 기초 닦아. 제갈량에 승리...진 왕조 기초 닦아.

권력은 두 아들 사마사, 사마소를 거쳐 손자 사마염에게 넘어갔다. 그는 뛰어난 지략가였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가 된다는 생각으로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구나. 농서를 얻었는데 촉까지 바라겠느냐며 권력을 물리쳤다.

219년 형주의 관운군이 위의 반성을 포위했다. 놀란 조조는 천도까지 고민했다. 그는 강남을 준다든 조건으로 오나라가 관운을 공격하면 위기에 서 벗어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오의 협공으로 관운은 생포되어 처형되고 위나라는 위기에 빠져나왔다. 223년 유희가 죽고 제갈량이 촉의 국정을 책임졌다. 5차례의 북벌이 시작되었다. 중원을 노린 제갈량의 도전과 위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마의의 지략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227년 제갈량은 위나라에 투항한 맹달을 포섭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맹달이 배신하면 촉군과 맹달군이 합쳐 중원까지 일거에 치고 올라갈 계획이었다. 이를 눈치 채고 밤낮없이 달려 500km의 거리를 8일만에 주파해 맹달을 사로잡아 처형했다. 기가 꺾인 촉군은 가정의 싸움에서 겨 첫 번째 북벌은 실패로 돌아갔다.

### 여행자 차림으로 방콕→라오스 거쳐온 듯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귀순 경로

북한 해외식당에서 집단탈출해 귀순한 종업원 13명의 귀순 루트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저장(浙江)성 Ningbo(寧波)시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다 현지 항공편으로 방콕을 거쳐 육로로 라오스로 이동한 뒤 7일 인천공항행 항공편으로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보국제공항에는 방콕행 국제선은 중국 동방항공이 주 3회(화목토) 운행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4~5일째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항공편이 있는 화요일인 지난 5일 오후 출발한 동방항공편으로 저녁 늦게 방콕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들은 우리 정부 측의 도움을 받아 태국-라오스 국경을 육로로 이동,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남뉴스**

이들의 이동은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졌으며 6일 밤늦게 출발하는 국제기 편으로 7일 새벽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비엔티안과 인천공항 간에는 국제기로는 대한항공이 코드 셰어하는 진이어 항공편과 티웨이 등 2편이 있고 라오스 항공까지 포함하면 3편의 직항노선이 있다. 이 항공편은 모두 밤늦게 출발해 오전 6시를 전후해 도착하는 밤 비행기다.

실제, 8일 정부가 공개한 사진 속의 북한 종업원들은 헝형색색의 패딩 점퍼와 가죽 점퍼, 후드 티, 청바지를 입고 백팩과 여행용 캐리어, 팬시 가방 등을 휴대한 전형적인 '여행자' 차림이었다.

다만 우리 정부 측은 이들의 탈북 루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당국과의 외교 문제, 민감성, 앞으로의 탈북자 문제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연남뉴스**

### 컴퓨터 앞에서 '하수' 된 일본 장기 고수

#### 야마자키 8단, 첫 대국 패배 지난해 단체전 인간 3승2패

바둑의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AI) 알파고에 패한 데 이어 일본 장기의 고수가 컴퓨터와의 대결에서 첫 판을 내렸다.

11일 NHK에 의하면, 이와테(岩手)현에서 지난 9~10일 벌어진 야마자키 다카유키(山崎隆之·35·사진) 8단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포난자(PO-NANZA)와의 덴오센(電王戰) 첫 대국에서 포난자가 승리했다.

포난자는 첫날부터 격렬한 공세로 야마자키 8단을 몰아부쳤다. 이틀째인 10일에도 그 형세가 유지되면서 야마자키는 결국 85수만에 패배를 인정했다. 야마자키 8단은 대국 후 "무난하게 뒤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세를 펴



지만 (상대가) 잘 반격했다"며 "다음 대국에서는 대책을 놓고 깊게 마련해 좋은 장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인간 프로그래머 사와 컴퓨터의 장기 대국인 덴오센은 작년까지 단체전으로 치러지다 올해부터 개인전으로 진행됐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각각 3승 1무 1패와 4승 1패로 인간을 압도했지만 작년에는 3승 2패로 인간이 승리를 거뒀다. 야마자키와 포난자는 앞서 진행된 인간과 컴퓨터계의 토너먼트를 각각 통과, 대국에 나서게 됐다. 2번째 대국은 내달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연남뉴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 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NO	사건번호	물 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어가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